

쿵쿵맨과 쿵쿵걸의

<세상을 살리는 캠페인>

김 호 중 홍보위원회 간사, 순천향의대 응급의학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일반인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플래시몹 이벤트를 5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의 5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

본 행사의 동기와 목적은 기존의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은 시설 안전관리자 혹은 소수의 희망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심폐소생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행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플래시몹으로 대중에게 보여주고 관심과 배움에 대한 의지를 일으키는 데 있다. 또한 협회의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심정지에 대한 많은 지표 등이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더욱 일반인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호응을 유발시키는 것이 심폐소생술 교육과 보급 향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새롭게 선정한 심폐소생술 캐릭터 '쿵쿵맨과 쿵쿵걸'과 관련 로고송도 선보였다.

본 행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작년에 한차례 경험이 있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승준 선생님을 홍보위원회 위원으로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이승준 선생님은 지난해 7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처음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도 지난 해 재능기부로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 '소녀시대'의 'Kissing

you', '슈퍼주니어'의 'Merry you' 등을 작곡한 이재명 작곡가가 플래시몹의 음악을 맡았고, 뮤지컬 'Notre dame de Paris', 'Cats'에 assistant director, 'Lost garden'에 director를 맡았던 이탈리아계 안무가 Elisa Petrolo 가 안무자문을 맡았다. 또한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와 동아리팀에서 안무를 실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전국 7개 대학 응급구조학과 및 간호학과 학생 총 270명이 참석하여 5개 주요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장소와 협조 기관은 아래와 같다.

장소 : 서울 - 코엑스 아셈광장

대전 - 대전역

광주 - 유스퀘어 광장

대구 - 동대구역

부산 - 부산역 분수대광장

협조 : 서울 -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서울강남소방서

대전 - 대전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대전역

광주 - 광주보건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광주서부소방서

대구 - 경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동대구역

부산 - 춘해보건대학교 응급구조과



서울 코엑스 아셈광장



대전역 광장



광주역 유스퀘어광장



동대구역 실내광장



부산역 분수대광장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새로운 캐릭터
쿵쿵맨과 쿵쿵걸을 소개합니다



과거에 쿵쿵맨은 평범한 30대 회사원이었습니다. 악당 심장마비에 게 가족을 잃고 나서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혹독한 CPR 훈련을 마스터한 그는 밤이면 쿵쿵맨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보호합니다. 전광화석 같은 심폐소생술을 보유한 쿵쿵맨은, 평소에 정체를 감추고 구로역 2번 출구에서 김밥을 팔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원장의 외동딸로 태어난 쿵쿵걸의 정체는 발랄한 여고생입니다. 의대를 지망하는 그녀는 얼핏 보면 평범한 모범생 같지만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쿵쿵맨을 보며 남몰래 슈퍼히어로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결국 동경하는 쿵쿵맨을 만나 쿵쿵걸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조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CPR 능력이 서툴러 쿵쿵맨에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쿵쿵맨과 쿵쿵걸의 ♪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

대한심폐소생협회의 로고송입니다.

♪♪

심정지가 오면 깨워보세요

119에 빨리 알리주세요. ♪♪

가슴가운데를 눌러주세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3가지만 기억하세요. ♪♪

행사의 특성상 각 지역의 가장 혼잡한 장소를 선택한 관계로 관계기관의 친밀한 협조가 없을 경우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다행히 많은 유관기관과 협회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2달여의 기간 동안 장소 섭외 및 시설 설치 등에 대한 협조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이번에 진행된 플래시몹 행사를 통하여 소개된 재미있는 캐릭터와 부르기 쉬운 로고송으로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을 더 친숙하게 느껴 많은 관심을 갖기를 희망한다.